

제2차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분야 한국의 리더십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15:00~18:00(한국), 08:00~11:00(스위스)

외교부와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공동 주최하고, RBM파트너십(RBM Partnership to End Malaria), Malaria No More(MNM), 국제보건애드보커시(KAGH)가 참여하는 제2차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심포지엄이 3월 31일 개최됩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사회의 지난 1년여간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정리해보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보건위기는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기존 3대 감염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실험 역량 강화, 감염병 감시체계 마련,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예방·진단·치료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에는 기존 감염병 퇴치를 위해 축적해온 인프라와 역량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지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과거 보건 위기를 극복하면서 개선한 보건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글로벌 보건분야가 그 어느때보다도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기술 혁신,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등 다자 협력 강화, 개도국 지원, 정부와 학계·기업계·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 확대 등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주요 의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 코로나19 대응 다자주의 협력: ACT-Accelerator의 목표와 성과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글로벌 보건 환경 변화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분야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 모색

참여 방법

- 사전 등록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참관 가능 (3.29. 등록 마감)
- 사전 등록자 이메일 주소로 Zoom 링크 공유
- 한-영 동시통역 제공

등록 링크: [온라인 참석 신청하기](#)

문의: KOREANAGH@GMAIL.COM

UNITE TO FIGHT

프로그램

개회 15:00 - 15:30(한국), 08:00 - 08:30(스위스)
사회: 최동환 前주세네갈대사, 아프리카 인사이트 이사장

15:00 - 15:30	축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영상 메시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영상 메시지)
	개회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특별연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팬데믹 극복과 포괄적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리더십	Peter Sands 글로벌펀드 사무총장

세션 1.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15:30 - 16:40(한국), 08:30 - 09:40(스위스)
좌장: Josh Blumenfeld Malaria No More(MNM) 글로벌정책국장

15:30 - 16:4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CT-A 성과와 2021년 전략	Bruce Aylward WHO 사무총장 자문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진단의 중요성	Emma Hannay FIND 전략고문 (ACT-A 진단파트너십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 보건안보의 전제조건: 공평한 접근과 지역사회 체계	Rachel Ong C20 국제보건실무그룹 위원장
	팬데믹 대응을 위한 G20 재무트랙의 역할	이준범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장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말라리아 퇴치 노력 지속 필요성	Philip Welkhoff 게이츠재단 말라리아사업국장 (영상 메시지)
	질의 응답	

Health Break

세션 2.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분야 한국의 역할 16:40 - 17:50(한국), 09:40 - 10:50(스위스)
좌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6:40 - 17:5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글로벌 보건분야 G7과 G20의 전략적 리더십	Birgit Pickel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글로벌보건국장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민간의 역할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베트남 보건부 인사 (TBC)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보건안보 정책과 말라리아 대응 계획	Raj Panjabi 美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MI) 조정관 (영상메시지)

토의: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한국 개발협력 정책

허태영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김선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한희정 국제보건애프터보커시 대표

폐회 17:50 - 18:00(한국), 10:50 - 11:00(스위스)

17:50 - 18:00	폐회연설: 말라리아와 글로벌 보건안보	Abdourahmane Diallo RBM파트너십 사무총장
	폐회사	Francoise Vanni 글로벌펀드 대외협력국장